

“세상 위한 좋은 일꾼 될게요”

삼성그룹 신입사원 200여명 통도사 자비원서 봉사



삼성그룹 한 신입사원이 통도사 자비원 한 어르신의 손을 잡고 말벗이 되어 주고 있다.

뺨간 모자에 단체복을 입고 줄을 지은 모습이 커다란 덩치만 아니면 유치원 아이들의 나들이 같기도 하다.

1월 14일 양산 통도사 자비원 마당에 가득 매운 이들은 다름 아닌 2007년도 삼성그룹 신입사원들.

4주 동안 진행되는 신입사원 인력개발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는 200여 명의 신입사원들이 사회복지법인 통도사 자비원(대표이사 현문·조계종 총무부장) 산하의 노인요양시설, 양로시설, 요양시설 어

우리 닦기·식사보조 등 재롱 부리며 손자 뉘 특목

르신들을 위한 자원봉사자로 나선 것이다. 신입사원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지성은 물론 따뜻한 감성으로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일꾼들로 성장하길 기대하며 삼성인력개발원에서 준비한 프로그램이다.

인원배치에 앞서 자비원 강당에 모인

신입사원들에게 사회복지법인 통도사 자비원 법인 사무처장 삼해 스님은 “종교의 같고 다름을 떠나 오늘 하루 동안은 시설에 계신 분들을 자신의 부모님처럼 생각하고 잘 돌봐 달라”고 당부했다.

노인복지센터와 전문요양시설, 양로시설, 요양시설에 배치된 삼성그룹 신입사원들은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거쳐 어르신들의 방과 화장실에서부터 건물 유리 닦기, 식사보조에 말벗이 되어드리느라 오후 내 구슬땀을 흘렸다.

할머니 다리를 주무르며 감칠맛 나게 트로트 한 자락을 선보이던 신입사원 김풍(29)씨는 “우리 할머니 같아 할머니가 잘 부르시던 노래 생각이 나서 불러드리고 싶었다”며 “오늘 경험을 잊지 않고 사회에 봉사하는 좋은 일꾼이 되겠다”고 말했다.

3주째 빈틈없이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 때문인지 여기저기 파스를 붙이고 있는 사원도,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사원들도 있었지만 어르신들의 손을 잡고 환하게 웃는 동안만은 굳이 바짝 든 신입사원이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서 재롱을 부리는 손자들 마냥 밝고 순수해 보였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이들의 손을 마주 잡고 “고맙다”는 말을 잊지 않는 어르신들의 표정에서도 손끝에서 느껴지는 온기를 받는 신입사원들의 얼굴에서도 햇살만큼 밝은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이은아 기자

한몽골 불교교류협회

불교국제포교후원회 발족



사단법인 한몽골불교교류협회(이사장 지성)가 1월 16일 대구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불교국제포교후원회를 산하기구로 발족시켰다(사진).

몽골불교재건을 돕기 위해 설립한 한몽골불교교류협회가 포교역량을 동남아시아와 세계 전역으로 확대하기 위한 산하기구를 조직한 것.

불교국제포교후원회 회장에는 협회 이사인 김현희 인테불교 레이더스클럽 회장(29)씨가 선출돼 이날 위촉식을 가졌다. 김현희 후원회장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세계 곳곳에 퍼져갈 수 있도록 봉사하는 마음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사장 지성 스님은 “몽골 현지에서 추진 중인 불교 유치원 건립봉사가 오는 11월경 마무리될 예정”이라며 “대구와 경북 등 불자들이 몽골 불교 재건의 터전을 마련한다는 것은 대구 불자의 긍지이자 소망”이라고 밝히고 “앞으로도 몽골 불교 재건을 지원하고 해외포교를 확대하는데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협회 이의수 회장과 “포교역량을 동남아시아로 확대시켜나가고 대구를 넘어 전국적 조직체로 발전시켜나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배지선 객원기자

지역불교 일구는 우바새

김창규

사회복지법인 불교사회복지회 기획국장



“하하 당신이 기쁘니 나도 기쁘니” 라는 구호를 내걸고 지역복지를 선도하는 지역불교복지단체가 있다. 사회복지법인 불교사회복지회(이사장 지성)도. 창립 10년 만에 햇빛가정 봉사원파견센터, 남구자활후견기관, 장애아전담 유아어린이집 등 산하에 16개 기관을 거느린 불교사회복지회의 다양한 활동은 불교계의 대사회적 활동이 소극적이라는 편견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이런 불교사회복지회의 중심에는 불교사회복지회 법인사무국의 김창규(47) 기획국장이 있다.

현재 남구시니어클럽 관장을 겸하고 있는 그는 불교사회복지회의 소식지인 <나눔지>의 편집인이며 “하하 당신이 기쁘니 나도 기쁘니”를 만든 장본인이기도 하다. 복지 공부를 늦게

김 국장은 “부처님이 이미 세상의 고(苦)를 없애기 위해 고민하셨고, 수행을 통해 행복으로 나아가 모든 방향을 설정해 주셨기에 우린 그저 그런 활동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명석만 알아놓으면 되는 것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젊은 시절 삶에 대한 고민으로 많은 방향을 했는데 불교를 알고 보니 그 방향이 부처님의 고민과도 다르지 않음을 알게 됐다고 한다. “모두의 삶이 나의 삶과 다르지 않고 또 부처님의 삶과 다르지 않기에 무수한 고뇌를 통해 고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면 행복하게 된다”는 김 국장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사후에 그대로 적용하면 모두가 행복해지는 사회적

산하 16개 기관 거느리고 대사회 활동 앞장

‘하하 당신이 기쁘니 나도...’ 만든 주인공

하고 2000년에 불교사회복지회에 들어갔지만, 보건복지부 노인인력개발원 기획위원으로 활동하면서 2004년에는 제1회 대구노인 일자리박람회를 총괄하는 등 불교사회복지회가 지역 활동에서 벗어나 모든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활동을 확대해 갈 수 있도록 체계를 잡는데 큰 역할을 했다.

설비회사, 건설회사, 웨딩 이벤트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경험한 후 37세의 늦은 나이에 다시 복지 공부를 시작해 석사논문 준비하는 과정에서 동사심(同事職)을 알게 되고 불교를 알게 됐으며, 이를 계기로 불교사회복지회와 인연이 됐다.

김창규 국장은 “불교계의 대사회적 활동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홍보였다”며 “불교사회복지회에 들어와 처음 시작한 일들이 복지프로그램과 사업 홍보물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은은히 배어나오도록 하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복지와 불교를 연결시켜주는 김 국장의 고민 속에서 ‘이웃이 아프니 나도 아프다’는 <유마경>의 내용을 이용한 ‘하하 당신이 기쁘니 나도 기쁘니’가 탄생했다.

지의 길이 된다”고 설명했다.

수많은 일에 치여 초조가 됐던 어느 날 “불생불멸(不生不滅) 불구부정(不垢不淨) 부증불감(不增不減)”이라는 <반야심경>의 구절을 보고 환희에 젖었다는 김 국장은 지금도 늘 <반야심경>을 가까이 두고 생각하고 멸한도 없으며, 깨끗함도 더러움도 없고 늘지도 줄지도 않는 무한 에너지로 가진 존재, 본성에 대한 가르침을 되새긴다. 김 국장은 “불교사회복지회는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생명의 본질을 추구해 간다는 것에서 행복과 기쁨을 느낀다”며 “사회복지사의 봉금이 그리 넘쳐 보이지 않던 만큼 주시는 어떤 일보다 행복하다”고 싱겁게 웃었다. 배지선 객원기자

올해는 신입 법무 유치에 주력

대불청 부산지구 정기총회서



2007년 부산의 청년 불교는 어떻게 달라질까?

1월 16일 열린 (사)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회장 손정현) 정기총회에서 확정된 신년계획안을 보면 2007년 부산 청년 불교의 방향은 ‘내실을 기하는 조직 활성화와 신입 법무 유치 주력’에 두 방향이 있다.

박만락 역대 회장, 이건국 역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정기총회에서 2007년 청년회 활동의 큰 방향성을 결정하는 사업안과 예산안을 확정했다(사진).

활동의 방향은 부산지역 신년단체의 대통합을 위한 조직사업, 신입 법무 교육 및 포교 사업, 지회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 수익 사업을 통한 청년포교 재정 안정, 교계 및 시민단체와의 교류 확대 등을 큰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교육 조직사업으로 부산지구와 지회가 연계하는 합동수계법회, 문화의 밤, 통합법요집 발간으로 정하고 문화, 체육, 포교, 홍보, 재정, 수익 등으로 나눠 선후배들이 함께 하는 체육대회, 군포교 활성화, 스님 초청법회, CMS 사업을 통한 후원인 구족 등을 추진하게 된다. (051)861-5241 천미희 기자

“미래의 기둥 다듬는 불사”

연등장학재단 장학금 전달



지역의 불교계 장학재단인 연등장학재단(이사장 범담)이 대구경북지역의 중·고·대학생 불자 50명에게 장학금 3000만 원을 전달했다(사진).

군위 석굴암 주지 범담 스님과 신도들이 뜻을 모아 2003년 발족한 연등장학회가 2004년 교육부에 장학재단으로 정식 등록

한 후 2005년에 이어 2번째 장학금을 전달한 것.

전달식은 1월 16일 대구 반월당 보현사에서 거행됐으며, 연등장학재단 장학금 3000만 원을 비롯하여 22명의 중학생과 덕원고등학교 강호진 학생을 비롯한 18명의 고등학생 등 모범적인 파라마타 소속 중고등학생 40명이 각각 50만원의 장학금을 받았고, 경북대학교 독어독문학과 최보윤을 비롯한 10명의 대학생불자들이 각각 100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또 행사에는 동화사 주지 허운 스님을 비롯한 스님과 학부부 등 10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가해 장학학생들을 축하했다.

연등장학재단 이사장 범담 스님은 “미래 세상을 떠받치는 기둥을 다듬는 불사를 하는 마음으로 이 장학금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배지선 객원기자

2007학년도 전학기 대원불교대학 · 대학원 신입생 모집 안내

[서울 · 부산]

모집과정

- 입문과정 (부산) : 주간, 야간 각 00명
- 대학과정 : 불교학과 : 주간, 야간 각 00명 [주2회 출석] / 불교상담심리치료학과 : 주간, 야간 각 00명 [주2회 출석]
- 대학원과정 : 주간 및 야간반 00명 [주2회 출석]
- 동신과정 : 대학 00명 / 대학원 00명 (*대학원은 월 1회 의무 출석)

지원자격

- 대학과정 : 체계적인 불교공부를 원하는 자(일반인, 직장인, 현역)
- 대학원과정 : 불교교양대학졸업자 및 해당학력이 인정되는 자 [법사, 포교사 자격소지자 우대]

제출서류

- 입학원서 (본교 소정양식 1부)

전형일정

- 원서교부 및 접수 : 2006년 12월 1일 ~ 2007년 2월 28일
- 대학, 대학원과정 전형방법 : 서류전형

전형료 납부

- 전형료 : 대학과정 2만원 / 대학원과정 5만원
- 외환은행 : 630-005063-139 [예금주 : 대한불교진흥원]
- 정확해택 : 부부(가족)입학시 : 50%, 성적우수자 : 50%, 스님 : 30%
- *수업료 카드결제 됩니다. (할부가능)

원서교부 및 접수처

- 서울 대원불교대학 교학과 02)706-1571, 707-1072 / 부산 대원불교대학 교학과 051)583-7811
- *전화 신청 시 입학원서 및 안내문을 발송 해드립니다.

문의

- 서울 : 서울 마포구 마포동 140 불교방송 3층 02)706-1571, 707-1072
- 부산 : 부산 금정구 장전동 382-3 051)583-7811

특전

- 불교학과 졸업 후 법사고시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소정의 법사고시 후 합격자에 한해 법사포수식을 거쳐 법사자격증을 드립니다.
- 불교전문심리상담사 자격증 부여 : 본교의 불교상담심리치료학과를 졸업하시면 소정의 실습 및 연수과정을 거쳐 2급불교 심리상담사 자격을 부여합니다. 이에 대학원 과정에 진학하시어 구체적인 전문영역(아동상담, 청소년상담, 가정상담)을 수료한 분에 한하여 소정의 실습 및 연수과정을 통하여 1급불교 전문심리상담사 자격을 부여합니다.
- *대학 2학년 편입생 모집 : 타 불교대학 1년이상 수료자 및 졸업자

대원불교대학 · 대학원 서울 : 서울 마포구 마포동 140 불교방송 3층 02)706-1571, 707-1072 / 부산 : 부산 금정구 장전동 382-3 051)583-7811

www.buddhaschool.or.kr